

경모궁(景慕宮) 제례악 연구

김 종 수
(서울대 국악과 강사)

〈目 次〉

- | | |
|----------------|-----------|
| I. 서 론 | 2. 악기편성 |
| II. 경모궁 역사적 개관 | 3. 영신악 |
| III. 경모궁 제례악 | 4. 음악적 특성 |
| 1. 악장 | IV. 결 론 |

I. 서 론

아! 돌보아주신 부모의 은혜와 아버지를 여윈 슬픔이 나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천승(千乘)의 봉양을 드리려 해도 하늘과 땅에 미칠 길이 없고, 하루 세 번 문안하는 예법을 준수할 뿐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드리지 못하니 자신을 어루만지며 남모르게 가슴아파할 따름이다. 이것이 무슨 사람이란 말인가? 남은 은덕이 손자에게 미쳐서 이제 세자의 칭호를 정하고 성대한 의식을 곧 거행하여 나라의 기업(基業)을 끝없는 경지에 올려놓게 되니 큰 복은 근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일로 인하여 옛날을 더듬으니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¹⁾

이는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아들인 정조가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나서,²⁾ 감회를 말한 것이다.

경모궁 제례악은 바로 사도세자 사당인 경모궁(景慕宮)에서 제사지낼 때 연주되던 음악이다. 『속악원보』(俗樂源譜) 권3과 권6에 경모궁 제례악이 실려 있는데, 경모궁 제례악은 종묘제례악을 축소한 것이라 하여 한국음악사학 측면에서 별반 관심을 끌지 못했다.³⁾

1) 『正祖實錄』 권18. 4a10-13: 정조 8년 7월 庚申. 번역은 『정조실록』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제10권 14쪽 참조.

2) 『正祖實錄』 권18. 1a2: 정조 8년 7월 乙卯.

3) 송방송, 『韓國音樂通史』 (서울:일조각, 1984) 410쪽.

그러나 정조 4년(1780)에 정조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서명옹(徐命膺)이 편찬한 『시악화성』(詩樂和聲)에4) 『속악원보』의 선율과는 전혀 다른 경모궁 제향악보가 실려 있다. 이 악곡은 사직이나 문묘에서 연주되는 것과 같은 아악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 경모궁 영신악 일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모궁 영신(迎神) 경안지악(景安之樂)5)

웅중위우 오(於)휴(休)석(錫)지(祉) 숙(肅)목(穆)이(離)광(光)

웅	유	태	유	대	웅	이	웅
우	각	궁	각	변궁	우	변치	우

용(龍)기(旂)관(裸)장(將) 양(洋)양(洋)제(帝)방(傍)

유	태	이	유	이	웅	대	웅
각	궁	변치	각	변치	우	변궁	우

태주위치 오(於)휴(休)석(錫)지(祉) 숙(肅)목(穆)이(離)광(光)

태	대	웅	임	유	태	고	태
치	변궁	각	궁	변궁	치	우	치

용(龍)기(旂)관(裸)장(將) 양(洋)양(洋)제(帝)방(傍)

웅	임	웅	태	유	태	고	태
각	궁	각	치	변궁	치	우	치

대려위각 오(於)휴(休)석(錫)지(祉) 숙(肅)목(穆)이(離)광(光)

대	협	이	협	이	유	협	대
각	변치	변궁	변치	변궁	우	변궁	각

용(龍)기(旂)관(裸)장(將) 양(洋)양(洋)제(帝)방(傍)

남	대	남	유	협	대	남	대
궁	각	궁	우	변치	각	궁	각

황중위궁 오(於)휴(休)석(錫)지(祉) 숙(肅)목(穆)이(離)광(光)

4) 김종수·이숙희 『譯註 詩樂和聲』 (서울:국립국악원, 1996) 解題. 1996년 10월 현재 인쇄중.
5) 『詩樂和聲』 人38.9-人39.7. (서울:국립국악원, 1983)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 12권.

황 고 남 임 남 임 고 황
궁 각 우 치 우 치 각 궁

용(龍)기(旂)관(祿)장(將) 양(洋)양(洋)제(帝)방(傍)

용 임 남 임 고 임 고 황
변궁 치 우 치 각 치 각 궁

이 악보는 물론 시행되지 않았으나, 현전하는 경모궁 제례악과⁶⁾ 『시악화성』이 모두 정조대(1776~1800)에 만들어졌으니, 현전하는 경모궁 제례악에 『시악화성』에서 추구한 음악관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00에 ‘정조 7년에 이휘지가 경모궁 악장을 짓고 후에 남공철이 개찬하였다.’고 했는데,⁷⁾ 남공철이 악장을 개찬하게 된 이유와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경모궁 역사적 개관

<영조 38년(1762) 윤5월 13일>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을 벗게 하고 맨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하고 자결할 것을 재촉하였고, 세자의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이때 세손(정조)이 들어와 관(冠)과 포(袍)를 벗고 세자의 뒤에 엎드리니, 임금이 안아다가 시강원으로 보내고 다시는 못들어 오게 하였다.⁸⁾

정조는 11살 되던 해에 이 일을 겪었고,⁹⁾ 영조 40년(1764) 2월에는 영조의 명으로 사도세자의 형이 되는 효장세자(孝章世子)¹⁰⁾ 후사가 되었다.¹¹⁾

6) 현재 음악이 남아 있는 『속악원보』의 경모궁 제례악을 가리킨다.

7) 『增補文獻備考』 권100. 16a2-18a10 (서울 : 국립국악원,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 27권).

8) 『英祖實錄』 권99. 22b11-14 : 영조 38년 윤5월 乙亥.

9) 영조 38년(1762) 5월에 나경언이 동궁의 허물 10여 조를 열거한 흉서(凶書) 사건이 있자 (『英祖實錄』 권99. 17b10-19a8), 윤5월 13일에 세자를 서인으로 폐하여 안에도 엄히 기도었고 (『英祖實錄』 권99. 22a12-23a9), 윤5월 21일에 그가 죽자, 임금은 시호를 사도세자(思悼世子)라 하였다 (『英祖實錄』 권99. 24b7-11).

10) 효장세자 : 영조 4년 11월 壬戌에 죽은 영조의 장남. 정조 즉위년 3월 庚寅에 진종(眞宗)으로 추승되었다.

11) 『英祖實錄』 권103. 9b12-10b8 : 영조 40년 2월 乙巳.

수십년 동안 지극한 슬픔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온¹²⁾ 정조는 생부(生父)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풀고 생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온 힘을 기울였으니, 정조 13년(1789) 양주 배봉산(拜峰山)에 있던 영우원(永祐園:사도세자 墓)을 수원부 화산(花山)으로 옮기고 나서 정조 자신이 직접 쓴 지문(誌文)에 잘 드러난다.

아! 불효한 이 아들이 천지에 사무치는 원한을 안고 지금껏 멍하고 구차스럽고 모질게 목석마냥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소자에게 중사를 맡겼기 때문이었으니, 이에 그 뜻에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지극한 심정으로 비읍니다. 아, 하늘이시여.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늘이 들어주는 것인데, 이 소자는 감히 기필코 이렇게 해야만 소자가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천하 후세에 떳떳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덕행(德行)을 들어 피 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현궁(玄宮)에 다음과 같이 적읍니다……

기사년(영조 25, 1749) 봄에 세자에게 서정(庶政)을 대리(代理)하도록 명하였다....계유년(영조 29, 1753)....이해 겨울에 명을 받들어 사형수를 세번 심리하였는데, 죽지 않고 목숨을 보전하게 된 자들이 많았다. 이후로는 해마다 이렇게 하였다....갑술년(영조 30, 1754). 각 도에 환곡(還穀)이 많은 데에서 모아 부족한 쪽을 보태주는 정사를 거행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스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임오년(영조 38, 1762)....윤5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무자년(영조 44, 1768)....대소 신료들에게 하교하기를, '임오년 일을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자질이 훌륭하였건만, 내가 정말 인자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¹³⁾

정조는 병신년(1776) 3월 10일에 즉위하자, 20일에 사도세자의 시호(諡號)를 장헌(莊獻), 묘(墓)를 영우원(永祐園), 사당을 경모궁(景慕宮)이라 이름 짓고,¹⁴⁾ 8월 17일에 시호를 올리었으며,¹⁵⁾ 사당을 고쳐 짓고 경모궁이란 현판을 정조가 몸소 써서 걸었다.¹⁶⁾ - 영조 40년(1764) 6월에 경성(京城) 내 동부(東部) 숭교방(崇教坊)에 사당을 세우고 이를 수은묘(垂恩廟)라 했었다.¹⁷⁾ - 정조 즉위년 5월 1일에는 경모궁 제례를 정하였으

12) 『正祖實錄』 권27. 41a4-5 : 정조 13년 7월 乙未. 「予之情事 不欲以常人自處者 卿等之所知 數十年至慟結臍胸中 若言土親庸三字 則予懷罔極 當復如何」

13) 『正祖實錄』 권28. 20a15-32b1 : 정조 13년 10월 己未. 번역은 『정조실록』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93) 제14권 53-85쪽 참조.

14) 『正祖實錄』 권1. 5b3-7 : 정조 즉위년 3월 辛卯.

15) 『正祖實錄』 권2. 10b11-11a14 : 정조 즉위년 8월 丙辰.

16) 『景慕宮儀軌』 권1. 圖說 1b2-1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17) 『英祖實錄』 권103. 26b15-27a1 : 영조 40년 5월 庚午. 「思悼世子再葬已訖 命建廟于弘化門之東 賜廟號曰垂恩 設置守衛官二人 如他宮園例」

『景慕宮儀軌』 권1 圖說1b1-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景慕宮在京城內 東部崇教坊東向 甲申六月二十九日營建 號曰垂恩廟」

니, 희생은 소와 양을 쓰고 음악은 3성(成)을 쓰고 춤은 6일(侷)을 쓰도록 하였다.¹⁸⁾

정조 13년(1789) 10월에 영우원을 수원부 화산(花山)으로 옮기고¹⁹⁾ 현릉원(顯隆園)이라고 이름지었다.²⁰⁾ 이후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백여리나 떨어진²¹⁾ 현릉원에 내려가 참배한 사실에서²²⁾ 정조의 경모궁에 대한 애뜻한 사모의 정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의 예문을 통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정조 19년(1795) 3월 7일> 상이 이르기를, “매년 이 때가 되면 꼭 이 세심대(洗心臺)에 오르는데 이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곳은 대개 경모궁을 처음 세울 때 터를 잡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10년 뒤인 갑자년은 바로 경모궁의 회혼(回婚)이 되는 해이다. 그 때에 자궁께서 현릉원에 가시어 참배하는 일이야말로 정리상으로도 예법상으로도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번에 자궁을 모시고 갔다가 환궁한 뒤에 수라에 사용하는 기명(器皿) 등속을 그냥 본부에 놔두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나에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²³⁾

<정조 24년(1800) 1월 15일> 우의정 이시수가 차자를 올려 현릉원 행차를 중지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밤에 행차를 준비하게 되니 마음은 활시위에서 벗어난 것 같고, 원릉을 바라보니 마치 아버지가 계신 뜨락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릉을 하직할 때를 미리 생각하니 도리어 가지 않는 것만 못하겠는지라, 이즈음에 내마음은 더욱 억누르기가 어렵구나.” 하였다.²⁴⁾

18) 『正祖實錄』 권1. 31a15-32a8 : 정조 즉위년 5월 辛未朔.

19) 『正祖實錄』 권28. 20a9-21a2 : 정조 13년 10월 己未.

20) 『正祖實錄』 권28. 3a6-12 : 정조 13년 8월 壬戌.

21) 『正祖實錄』 권28. 1a2-4 : 정조 13년 8월 甲寅朔.

22) 『正祖實錄』 권29. 13b1 : 정조 14년 2월 庚申.

『正祖實錄』 권32. 6a5 : 정조 15년 1월 壬辰.

『正祖實錄』 권34. 4a14 : 정조 16년 1월 乙未.

『正祖實錄』 권37. 8a8 : 정조 17년 1월 丁未.

『正祖實錄』 권39. 6a6 : 정조 18년 1월 辛丑.

『正祖實錄』 권42. 33b5 : 정조 19년 윤2월 甲午.

『正祖實錄』 권44. 9a4-5 : 정조 20년 1월 戊辰.

『正祖實錄』 권46. 12a13-14 : 정조 21년 1월 辛未.

『正祖實錄』 권48. 17b1 : 정조 22년 2월 戊戌.

『正祖實錄』 권52. 15b15 : 정조 23년 8월 丙午.

『正祖實錄』 권53. 7a7 : 정조 24년 1월 己巳.

23) 『正祖實錄』 권42. 49a10-b7 : 정조 19년 3월 戊午.

24) 『正祖實錄』 권53. 6b7-8 : 정조 24년 1월 戊辰. 번역은 『정조실록』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3) 제26권 187-188쪽 참조.

름을 따라 그대로 경모전이라 하였다.²⁶⁾-으로 옮겨 모시어 봉안제(奉安祭)를 지냈다.²⁷⁾

광무 3년 11월에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승함에 따라 경모궁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다. 즉 경모궁 제례는 광무 3년 11월까지 행해졌으며,²⁸⁾ 경모전(景慕殿)에 모셨던 장종의 신위를²⁹⁾ 광무 3년(1899) 11월 25일에 종묘에 부묘함에 따라,³⁰⁾ 장종에 대한 제사가 종묘에서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종이 이미 황제의 자리에 나갔으므로, 광무 3년 12월 19일에 태조의 묘호(廟號)와 제호(帝號)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로, 고조(高祖)인 장종대왕을 장조(莊祖) 의황제(懿皇帝)로, 증조(曾祖)인 정종대왕을 정조(正祖) 선황제(宣皇帝)로, 조(祖)인 순조대왕을 순조(純祖) 숙황제(肅皇帝)로, 부(父)인 익종대왕을 문조(文祖) 익황제(翼皇帝)로 소급하여 올림에 따라³¹⁾ 장종은 장조의황제로 되었고, 현재는 영녕전 제15실에 신위가 모셔져 있다.

26) 『高宗實錄』 권39. 62a13-b1 : 광무 3년 9월 1일. 「議政府以莊獻世子追崇廟號望莊宗 諡號 望神文桓武莊獻光孝 陵號望陵殿 殿號望景慕…議定上奏 敬依」

『增補文獻備考』 권60. 14a7-10. 「景慕殿在昌德宮內 莊祖獻敬皇后魂殿 英祖三十八年 莊祖 以世子薨 純祖十五年 獻敬皇后以惠嬪薨 今上光武三年己亥 追尊祔太廟 先是 正祖皇帝建 景慕宮 奉莊祖 及祔廟時 魂殿仍號曰景慕殿」

27) 『高宗實錄』 권39. 81b10-11 : 광무 3년 11월 12일 「詣景慕宮 上諡冊實後親祭 移奉景慕殿後 行奉安祭 皇太子隨詣行禮」

『高宗實錄』 권39. 81b15-82a15 : 광무 3년 11월 13일 「御中和殿 皇太子侍座 受賀 頒赦詔文曰…茲於陰曆十月初十日 率文武群臣 謹奉冊寶 追上莊獻世子 尊諡曰神文桓武莊獻光孝大王 廟號曰莊宗 惠嬪曰獻敬王后 既展追崇之典 宜推錫類之恩 所有應行事宜 開列于後」

28) 『高宗實錄』 권29. 69b13 : 고종 29년 12월 4일.

『高宗實錄』 권30. 5a4-5 : 고종 30년 2월 4일.

『高宗實錄』 권31. 15a1 : 고종 31년 4월 1일.

『高宗實錄』 권36. 1a4-5 : 광무 원년 8월 16일(양력). 음력 정유년 7월 19일.

『高宗實錄』 권39. 81b10-11 : 광무 3년 11월 12일.

29) 『高宗實錄』 권39. 83a11-12 : 광무 3년 11월 19일. 「詣中和殿 親傳景慕殿冬享大祭香祝」

『高宗實錄』 권39. 84a11-12 : 광무 3년 11월 23일. 「詣景慕殿 行酌獻禮 皇太子隨詣行禮」

『高宗實錄』 권39. 84a13 : 광무 3년 11월 24일. 「詣景慕殿 行告動駕祭」

30) 『高宗實錄』 권39. 84b12-85b1 : 광무 3년 11월 25일 「行莊宗大王祔廟禮 詣中和殿 皇太子侍座 受賀 頒赦詔文曰……謹奉冊寶 追上正宗大王尊號曰敬天明道洪德顯謨 孝懿王后尊號曰莊徽…」

하루 전인 11월 24일에 정조에게 경천명도홍덕현모(敬天明道洪德顯謨), 효의(孝懿)왕후에게 장휘(莊徽)란 존호를 추상(追上)하였다.<『高宗實錄』 권39. 84a13-14: 광무 3년 11월 24일>.

31) 『高宗實錄』 권39. 88b15-89a12 : 광무 3년 12월 7일.

『高宗實錄』 권39. 93b4-5 : 광무 3년 12월 19일.

III. 경모궁 제례악

1. 악 장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00에는 대제학 이휘지(李徽之 1715~1785)가 지은 경모궁 악장과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고쳐 지은 경모궁 악장 둘이 있는데, 이휘지의 것은 정조 7년(1783)에 지었다고 되어 있고, 남공철이 지은 것은 연대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³²⁾

그런데 정조 5년(1781) 8월 5일에 경모궁 가을 제향때 악공이 원수(原數)에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악원 제조 정상순을 파직시킨 사실로 미루어,³³⁾ 정조 5년에 이미 경모궁 제향에 음악을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조 7년(1783) 이전에 어떤 악장을 노래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모궁의궤』에

<병신년(1776) 5월 3일> 왕이 “경모궁·영우원의 축문과 악장문은 내일 대제학을 불러서 지어 올리도록 하라.”고 전교를 내리었다.³⁴⁾

라는 기록이 있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병신년(1776) 5월 3일 사시(巳時)> 왕이 휘지에게 말하길, “악장문은 지어왔는가?” 하니, 휘지가 지어온 악장문을 바치매, 국영에게 읽도록 명하였다. 왕은 말하길, “악장문은 과연 잘 지었도다.” 하였다.³⁵⁾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조 즉위년(1776)에 대제학 이휘지가 경모궁 악

32) 『增補文獻備考』 권100. 16a2-18a10 「景慕宮樂章 正祖七年 大提學李徽之撰……改撰景慕宮樂章 大提學南公轍撰…」

33) 『正祖實錄』 권12. 17b10-12 : 정조 5년 8월 乙亥. 「承旨以景慕宮秋享時 樂工未滿原數奏 罷掌樂 提調鄭尙淳職 仍命本院監正以稟」

34) 『景慕宮儀軌』 권4 今制 7a11-1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丙申…五月…初三日 內局入侍時 傳曰 景慕宮 永祐園 祝文與樂章文 明日大提學牌招製進」

35) 『承政院日記』 제1381책 정조 즉위년 5월 3일. 「上謂徽之曰 樂章文製來乎 徽之進所製樂章文 命國樂讀之上曰 樂章文果是善」 (『承政院日記』 제77권 (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70) 276쪽 中段 11-12행)

장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보문헌비고』의 ‘정조 7년’이란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⁶⁾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권2. 사전(祀典)에 이휘지가 지은 악장이 실려 있는데,³⁷⁾ 이의궤가 정조 7년 무렵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므로,³⁸⁾ 『증보문헌비고』에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다.

악장은 정조 즉위년에 지었으며, 경모궁 제례에 실제 음악이 연주된 것은 영조의 상기(喪期) 3년이 지나서 부터이다.³⁹⁾ 이는 『경모궁의궤』를 통해서 확인된다.

<병신년 4월 12일> 전교하기를, “경모궁에 음악을 쓰기로 이미 결정하였는데, 악장문은 연복전(延福殿)⁴⁰⁾ 예에 따라 3년을 기다린 뒤 거행하라.” 하였다.⁴¹⁾

『경모궁의궤』에 실린 이휘지가 지은 악장은 다음과 같다.⁴²⁾

영신. 오휴곡(於休曲)

아, 아름답게 복을 거듭 내리시니,	於休申錫祉
엄숙하고 그윽하게 밝은 빛을 우리러 봅시다.	肅穆仰離光
용기(龍旂) 앞세우고 친히 제사를 올리니,	龍旂親禱將
홀륭하고 아름답게 상제 곁에 계시도다.	洋洋在帝傍

36) 『增補文獻備考』를 原史料와 비교한 결과 이따금 연대가 잘못 된 것이 발견된 적이 있다. 『譯註 增補文獻備考 -樂考-』(김종수 역주, 서울:국립국악원, 1994)에서 연대가 잘못된 곳은 ★ 표시를 하고 바로 잡아 놓았다.

37) 『景慕宮儀軌』 권2. 3a1-4a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38) 전교(傳敎)가 정조 즉위년(1776)에서 7년(1783)에 걸쳐 있으니, 정조 7년 이후에 편찬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만약 정조 8년 이후에 편찬되었다면 정조 8년 9월에 경모궁에 존호 올린 사실을 <『正祖實錄』 권18. 34a-12-b10 : 정조 8년 9월 己巳> 빠뜨릴 리 없기 때문이다.

39) 정조 2년 5월 1일에 담채를 지내고<『正祖實錄』 권5. 42b5-6>, 5월 2일에 종묘 제 13실에 영조와 정성왕후를 부묘함으로써<『正祖實錄』 권5. 42b6-43a13>, 영조의 喪期는 끝났다.

40) 연복전은 孝章세자의 後嗣가 된 정조가 즉위년 3월 19일에 효장세자를 眞宗으로 추송하고 나서 신위를 모신 혼전이다.<『正祖實錄』 권1. 5a9-13 : 정조 즉위년 3월 庚寅>.

정조 2년 5월 2일에 영조가 종묘에 부묘될 때 진종도 부묘되었다.<『正祖實錄』 권5. 42b6-43a13 : 정조 2년 5월 辛酉>

41) 『景慕宮儀軌』 권4 今制 4b12-5a1.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丙申…四月…十二日 傳曰 景慕宮用樂既已定奪 樂章文依延福殿例 待三年後舉行」

42) 『譯註 增補文獻備考 -樂考-』(국립국악원)에 필자가 번역한 경모궁 악장이 있는데, 잘못 번역하였음을 여기서 밝힌다. 아현 인입 독경곡과 아현 휴운곡은 구두점도 잘못 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다. 악장을 번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필자의 한문실력 탓이다.

여기에 실린 경모궁 악장 번역은 『국역증보문헌비고 악고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 428-431쪽에 실린 경모궁 악장을 참조하였다.

전폐. 재명곡(齊明曲)

재제하여 우리의 정성 깨끗이 하여,
공손히 광주리에 폐백을 받들어 올립니다.
아! 복된 생각 이루어졌으니,
우리 제사일 돌보아 편안히 하소서.

齊明潔我誠
于以虔承筐
猗那綏思成
顧予祀事康

진찬. 혁우곡(赫佑曲)

희생을 마련하여
등과 두에43) 담았도다.
번과 적도44) 있으며,
소와 관도 조화롭게 연주하도다.
이를 흥향하시고 마땅히 여기서,
자손을 도와 주소서.

我牲既備
于登于豆
有燔有炙
簫箏和奏
是享是宜
子孫其佑

초헌. 인입(引入) 제권곡(帝眷曲)

상제께서 우리 동방을 돌보시도다.
남은 칭송을 고대하며,
이제 숨겨진 빛을 노래하니,
왕께서 대통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帝眷我東方
延頸有餘頌
時用歌潛光
由王陞大統

초헌. 진색곡(震索曲)

세자께서45) 천명(天命)을 받드니,
밝음은 해에 짝하셨도다.
임금이 될만한 덕과
옥처럼 온유한 자질을 지니고,
명을 받아 대신 다스리니,
훌륭한 평판이 자자했도다.
경사를 후손에게 뻗게 하시니,
빛나도다! 음덕을 내리심이어.

震索膺天
高明配日
龍潛之德
玉裕之質
受命代理
令聞洋溢
衍慶于後
赫赫垂隲

초헌. 인출(引出) 유길곡(維吉曲)

축문 고유(祝文告曲) 길하고,

祝告維吉

43) 등은 기와로 만든 祭器로 국을 담는다. 두는 나무로 만든 제기로 초나 소금으로 첫담근 채소나 가늘게 썰어서 소금으로 절인 고기를 담는다.

44) 燔과 炙은 구운 고기이다.

45) 『周易』 권18 震괘 설명에 「乾坤之交 一索而成震 生物之長也 故爲長男」이라 하였으므로 震索을 장남인 세자로 번역하였다.

제사 의식 어그러짐이 없도다.
 신께서 도와주시어,
 하늘의 은총을 받으셨도다.
 공적(功績)이 빛나매,
 관현에 올려 드높이나이다.
 자손을 보전하시어
 천만년 전하게 하소서.

享儀不愆
 維神其佑
 荷龍于天
 烈光式昭
 載播管絃
 子孫保之
 於千萬年

아현. 인입 독경곡(簫慶曲). 종헌도 같다.
 두터운 경사애다 상서가 뻗치니
 왕성하여 거둬 끝이 없도다.
 세자 위에 올라 예의가 엄숙하니,
 칭송하는 노래소리 길기도 하여라.

簫慶延休吉
 沛沛申無疆
 徂位禮儀肅
 頌美矢歌長

아현. 휴운곡(休運曲). 종헌도 같다.
 아름다운 운수가 열려,
 그윽한 덕 드날리도다.
 만기(萬機:國政)를 대신 다스리면서,
 훌륭한 임금의 덕을 이어 받으셨도다.
 선왕의 빛나는 업적을 우러르고,
 후손을 창성하게 하셨도다.
 일무를 성대히 추며,
 대방(大房) 옥으로 장식한 祭器)을 올리도다.

休運啓
 幽德揚⁴⁶⁾
 攝萬機
 膺重光
 仰前耀
 俾後昌
 紛佻舞
 薦大房

인출. 휘유곡(徽柔曲)
 아! 드러나지 않았는가?
 아름답고 유순하게 덕을 기르셨도다.
 소양(小陽 세자)의 지위로
 태극(太極 대왕)을 돕고 높이셨도다.
 신령께서 양양히 이르시어
 오르 내리시도다.
 하늘에서 기뻐하시어
 영원토록 큰 복을 내리소서.

於乎不顯
 徽柔養德
 正位少陽
 扶尊太極
 來格洋洋
 載降載陟
 衍衍自天
 永錫遐福

철변두. 강안곡(康安曲)
 제물은 향기롭고

有芬有苾

46) 『增補文獻備考』 권100. 16b10에는 休德揚으로 되어 있다.

행례의식은 매우 아름답도다.	式禮孔嘉
신께서 오시어 흠향하시니	神維來歆
덕음이 멀지 않도다.	德音不遐
철상(徹床)은 더디지 않게 하고,	廢徹不遲
등가(登歌)의 노래 소리는 길이 울리도다.	登歌永嗟

송신. 경안곡(景安曲)	
우리의 제례 마치오니	我禮卒度
음악은 3성을 연주하였도다.	樂三成而
신께서 편안히 즐기시고	神既康樂
우리의 정성 돌아보시도다.	顧予誠而
학을 타고 아득히 가시니	鶴馭杳邈
무지개 깃발 봉송하도다.	送霓旌而 ⁴⁷⁾

이제 이휘지가 지은 경모궁 악장이 언제까지 연주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조 23년(1799) 5월 1일에 정조는 다음과 같이 전교를 내렸다.

종묘 제향은 14실에 제사 올리는 의식이 자못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악 연주도 따라서 느긋한데, 경모궁 제향은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다소 짧으므로 음악을 연주할 때에 매우 천천히 느긋하게 연주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칠변두 악장과 송신 악장을 전에 이미 합하여 연주하도록 하였고, 그 얼마 뒤에 또 초헌 악장과 진찬 악장을 합하여 연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지금 초헌과 진찬 두 악장을 보니, 자구(字句)의 많고 적음이 너무 다르다. 인입(引入)과 초헌 악장은 4자8구·5자4구로 되어 있고, 진찬 악장은 단지 4자8구로 되어 있어, 형세가 일시에 합하여 연주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만악 전폐와 진찬 두 악장을 합하여 연주한다면, 진찬 악장은 단지 4자만 많을 뿐이니,⁴⁸⁾ 함께 연주할 때에 길고 짧음이 같지 않을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례 절차가 비록 더 늘어나더라도 음악 연주는 촉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악(典樂)으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연습을 하게하여 오늘 밤 대향(大享) 때부터 이대로 시행하게 하라.⁴⁹⁾

47) 『景慕宮儀軌』 권2 祀典.3a14a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48) <『正祖實錄』 권51. 49b6-7>에는 「今若以奠幣及進饌兩樂章合奏 則進饌樂章只加四字 合奏之時 可無長短不齊之慮」라 되어 있어 얼핏 '진찬 악장에 4자를 더하기만 하면 함께 연주할 때에 길고 짧음이 같지 않을 염려가 없을 것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承政院日記』 제1808책 정조 23년 5월 戊午朔 기록(『承政院日記』 제95권 (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72) 873쪽 中段 2-4행)에는 「今若以奠幣及進饌兩樂章合奏 則進饌樂章 比奠幣樂章 只加四字 合奏之時 可無長短不齊之慮」라 되어 있으므로 '진찬악장은 전폐악장에 비하여 다만 4자가 많을 뿐이니'로 번역된다.

49) 『正祖實錄』 권51. 49b1-9 : 정조 23년 5월 戊午朔 「敕曰 廟享則 十四室將事之際 時刻頗遲 故

정조가 ‘인입(引入)과 초헌 악장은 4자8구·5자4구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은 이휘지가 지은 경모궁 악장의 초헌인입이 5자4구, 초헌이 4자8구인 것과 일치한다. 정조가 ‘만약 전폐와 진찬 두 악장을 합하여 연주한다면, 진찬 악장은 단지 4자만 많을 뿐이니, 함께 연주할 때에 길고 짧음이 같지 않을 염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도, 이휘지가 지은 경모궁 전폐악장이 5자4구, 진찬악장이 4자6구이므로 진찬 악장이 전폐 악장보다 4자가 많을 뿐이어서 일치한다. 다만 ‘진찬 악장은 단지 4자8구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4자 6구를 혹 잘못 쓴 것이 아닐까? 어찌됐든 이 기록은 정조 23년(1799) 당시 이휘지가 지은 악장을 여전히 썼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한편 순조 9년(1809) 3월 28일에 김노경(金魯敬)이 말하기를,

신이 지난 번 연석(筵席)에서 경모궁 악장 일에 대해 뒷날 연석에 나올 때 다시 아뢰라는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원(梨園 장악원)을 상고하여 보았더니, 선조(先朝) 기미년(정조 23, 1799) 하교에 ‘악장이 너무 길으니 줄이되, 5언을 깎아서 4언으로 만들고 1장은 나누어 2장으로 만들라.’고 하였으며, 아헌과 종헌에 쓰는 악장도 개찬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 다만, 아직 완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⁵⁰⁾

하였고, 4월 25일에 장악원제조 박윤수(朴崙壽)가 다시 악장을 고치지 않을 수 없음을 아뢰매, 임금은 문형(文衡 대제학)으로 하여금 지어올리도록 하였다.⁵¹⁾ 이에 남공철(南公轍)이 순조 9년(1809)에 경모궁 악장을 고쳐 지었다.⁵²⁾ 따라서 이휘지가 지

奏樂亦隨以舒緩 至於宮享 時刻稍速 奏樂之際 每欠遲久之意 故撤籩豆送神樂章 前既合奏 而俄亦以初獻樂章及進饌樂章合奏之便否 有所詢問矣 今見初獻進饌兩樂章 則字句多寡迥然不同 引入與初獻時樂章 則爲四字八句五字四句 進饌樂章 則只爲四字八句 勢難合奏於一時 今若以奠幣及進饌兩樂章合奏 則進饌樂章只加四字 合奏之時 可無長短不齊之慮 如是則行禮節次 雖亦加勝 而奏樂則可無迫促 令典樂輩試爲肄習 自今夜大享 依此爲之可也。

50) 『純祖實錄』 권12. 21b15-22a2 : 순조 9년 3월 戊子. 「魯敬曰 臣於向筵 以景慕宮樂章事 承日後登筵時更奏之教矣 攷諸梨園 則先朝己未年 下教以樂章太長裁節之 五言刪爲四言 一章分爲二章 用於亞終獻 亦有改撰之教 而未及成矣」
번역은 『순조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제5권 310쪽 참조.

51) 『純祖實錄』 권12. 24a8-11 : 순조 9년 4월 甲寅 「次對 掌樂提調朴崙壽奏言 曩在先朝 以景慕宮樂章 字多而不叶於律 因特教有所變樂 樂章則有後日親撰之下教 而遂未違矣 亞獻樂章一句 陞用初獻樂章 便屬闕文 極爲未安 不可不釐正矣 上曰 令文衡一通撰進可也」

52) 『金陵集』 권5. 16a2-17a4 (서울 : 國學資料院, 1990) 제1권 301-303쪽.

「景慕宮祭享樂章文 己巳因下教改撰
於休錫祉 肅穆离光 龍旂禿將 洋洋帝傍 (於休一章 四句 迎神)
齋我誠明 將以承筐 猗那思成 祀事孔康 (齋明一章 四句 奠幣)
我牲既備 于登于豆 是享是宜 子孫其佑 (赫佑一章 四句 進饌)」

은 악장은 순조 9년 남공철이 악장을 고쳐짓기 전까지 쓰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종 29년(1892)에 중수(重修)된 『속악원보』(俗樂源譜) 권3과 권6에 경모궁제향악이 실려 있는데, 악장은 권3에만 실려 있다. 권3에 실린 악장은 남공철(南公轍)이 순조 9년(1809)에 임금의 명령을 받고 고쳐 지은 것과 똑같다. 따라서 『속악원보』는 순조 9년(1809) 이후에 편찬된 악보이다.

2. 악기편성

즉위년(1776) 8월 28일에 김한기와 정상순을 악기도감 제조로 삼고, 경모궁 악기를 만들 것을 명하여,⁵³⁾ 다음해(1777) 5월 25일에 경모궁 악기 조성이 완성되었다.⁵⁴⁾

정조대(1776~1800)에 만든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 실린 악기편성과 일무(佾舞)는 다음과 같다.⁵⁵⁾

帝眷篤生 潛光駁聲 升歌象德 鍾磬有經 (帝眷一章 四句 引入)
震索應天 受命代理 令聞餘烈 後孫垂祉 (震索一章 四句 初獻)
祝告維吉 享饗不應 神其保佑 於千萬年 (維吉一章 四句 引出)
篤慶延休 其祥長發 駿奔俎位 靡雍對越 (篤慶一章 四句 引入 ○ 亞終獻同用)
天啓休運 德洽重光 本支百世 俾熾而昌 (休運一章 四句 亞終獻同用)
於乎不顯 徽柔養德 既享我誠 申降遐福 (徽柔一章 四句 引出 ○ 亞終獻同用)
有芬有苾 式禮孔嘉 廢徹不遲 登歌永嗟 (有芬一章 四句 徹籩豆)
我禮卒度 神樂康而 鶴馭杳邈 送覽旌而 (我禮一章 四句 送神)

53) 『正祖實錄』 권2. 22b13-14: 정조 즉위년 8월 丁卯.

54) 『正祖實錄』 권3. 52a8-9: 정조 원년 5월 己丑. 『景慕宮樂器成』

55) 『景慕宮儀軌』 권1 圖說 53a-54b. 규장각도서관번호 13632.

『韓國音樂通史』(송방송, 서울:일조각,1984) 408쪽에 '경모궁의 등가에 19명과 헌가에 35명의 악공들을 참가하도록 정하였고,'라는 글이 나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모르겠다. 『景慕宮儀軌』에 따르면 등가에 19명의 악공과 박을 잡은 典樂 1명, 헌가에 20명의 악공과 박을 잡은 典樂 1명이 있다. <『增補文獻備考』 권105. 6a1-3>에도 '정조 5년. 장악제조 조시준이 아뢰길, '...종묘와 영녕전의 등가는 각각 22명이요 헌가는 각각 24명이요, 경모궁의 등가는 19명이요 헌가는 21명입니다...'라는 글이 나오니 '헌가에 35명의 악공들을 참가하도록 정하였다'라고 한 것은 아마 착오인 것 같다.

『增補文獻備考』 권105에 경모궁 헌가에 21명이라하여 『景慕宮儀軌』의 헌가에 20명이 있는 것과 차이가 나나, 이는 <『景慕宮儀軌』 권1. 53b 軒架圖說>에 조촉(照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제사지내는 시각으로 보아 조촉이 반드시 필요할 터이니 21명의 악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 권105. 7b9-8a4>에 '종묘 등가 22명, 헌가 24명'이라고 하였는데, 헌가 24명은 조촉 1명이 포함된 수이다.

경모궁 등가

			北			
			박			
가 야 금	생	통 소		거 문 고	아 쟁	당 비 파
당 적	大 筭	노 래		노 래	훈	피 ⁵⁶⁾ 리
방 향	편 경	어	절 고	축	장 고	편 종

경모궁 헌가

			北			
			박			
진 고	편 종	어		축	편 경	방 향
훈	피 리	노 래		노 래	大 筭	태 평 소
해 금	지	생	大 金	장 고	당 적	향 비 파

56) 피리는 당피리라고 생각한다. 『景慕宮儀軌』(규장각도서번호 13632) 권1. 46b에 실린 피리 설명이 <『國朝五禮儀序例』 권1. 102a下1-4>에 실린 당피리 설명과 똑같기 때문이다.

문무(文舞) 36인. 왼손에 악(籥)을 들고, 오른손에 꿩깃[翟]을 든다.

무무(武舞) 36인. 앞의 2줄(12인)은 칼을 들고, 그 다음 2줄은 창을 들고, 그 다음 2줄은 활과 화살을 든다.

『경모궁의궤』에 실린 등가·헌가·문무·무무는 같은 정조대에 편찬된 『춘관통고』에 실린 것과 같다.⁵⁷⁾ 경모궁 악현을 『춘관통고』의 종묘 악현과 비교하여 규모를 살펴 보겠다.

『춘관통고』 종묘 등가⁵⁸⁾

박

당	생	가	거	아	향
비		야	문	쟁	비
파		금	고		파

통	당	대	노	노	피	대	훈
소	적	금	래	래	리	금	

방	편	어	장	장	축	절	편
향	경		고	고		고	중

『춘관통고』 종묘 헌가⁵⁹⁾

조
축

57) 『春官通考』 권15. 吉禮 景慕宮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上권 393-394쪽. 『春官通考』는 정조 13년(1789) 봄에 了纂되었다고 한다.<『春官通考』 解題>.

58) 『春官通考』 권12. 吉禮 宗廟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上 274쪽.

59) 『春官通考』 권12. 吉禮 宗廟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上 273쪽. 종묘 헌가 악현 도표를 보면 路鼗 와 拍이 없으나, 설명에는 노도와 박이 나와 있으니, 종묘 헌가에도 경모궁 헌가처럼 노도와 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今儀宗廟軒架 軒架在廟庭近南 設路鼗一拍一於北架之北 路鼗在東 拍在西 設祝敵於北架內 祝在東 敵在西 編磬一方響一在東 編鍾一晉鼓一在西 橫列爲一行」.

진	편	어	축	편	방
고	종		경	향	

훈	대	피	노	노	태	대	생
	금	리	래	래	평	금	
					소		

해	小	당	장	장	당	大	지
금	金	적	고	고	비	金	
					과		

경모궁 등가에 비해 종묘 등가에 향비파 1·大箏 1·장고 1이 더 많고, 경모궁 현가에 비해 종묘 현가에 大箏 1·小金 1·장고 1이 더 많다. 또 경모궁 현가에 향비파 1이 있는데, 종묘 현가에는 당비파 1이 있는 것이 다르다.

즉 경모궁 등가에 19명·현가에 21명(照燭 포함)의 악공이 필요하고, 종묘 등가에 22명·현가에 24명(照燭 포함)의 악공이 필요하니, 경모궁 악기편성 규모가 종묘의 것에 비해 약간 적다.

3. 영신악(迎神樂)

정조 즉위년(1776) 5월 1일, 경모궁 제례 영신(迎神)에 3성(成)을 쓰기로 정하였다.⁶⁰⁾ 종묘 영신에 9성을 하는데 경모궁 영신에 3성을 하는 것은 종묘제향 연습은 3일 전에 하는데 경모궁제향 연습은 하루 전에 하고, 종묘제향은 7일을 재계하는데 경모궁제향은 5일을 재계하는 것처럼 응쇄하는 절차를 삼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⁶¹⁾

그러나 정조 15년(1791) 6월 22일에 장악원 제거(掌樂院提學)인 예조판서 서호수(徐浩修)와 사직(司直) 이민보(李敏輔)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악장궤범』(樂章軌範)을 상고해 보니, 풍운뢰우단의 영신악은 6성(成)을 쓰고 사직단의 영신악은 8성을 쓰고 종묘와 문묘의 영신악은 9성을 쓰는데, 이것은 『주관』(周官)

60) 『正祖實錄』 권1. 31a15-32a8 : 정조 즉위년 5월 辛未朔.

61) 『正祖實錄』 권13. 26a14-b1 : 정조 6년 5월 壬寅.

의 '6변(變) 하면 하늘의 신령이 이르고, 8변 하면 땅의 신령이 이르고, 9변 하면 사람의 신령이 흠향한다.'는 글에 근본을 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궁의 제사절차에 대하여 고금을 참작하여 반드시 정성스럽고 신중히 하시어 인정과 예법에 잘맞고 그릇 수도 법도에 맞지만, 유독 영신악의 성수(成數)에 있어서만은 예를 관장하는 신하가 3성으로 의논해 아뢰는 것을 가보(歌譜)에 올려 놓아 결국 종묘와 문묘 영신악의 성수(成數)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라며, 경모궁제향은 종묘나 문묘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령에게 올리는 제향이니 영신에 9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었다. 예조·규장각·예문관의 여러 관원들도 모두 악관(樂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당시에 고쳐지지는 않았다.⁶²⁾

이후 『속악원보』 권3 경모궁 제향악보에 「迎神 於休曲 黃鍾清宮九成」이라 되어 있는데,⁶³⁾ 언제부터 경모궁 영신에 9성을 하였을까? 순조 4년(1804) 8월 4일에 좌참찬 조진관(趙鎭寬)이 다음과 같이 아뢰는 것을 통하여, 정조 23년(1799) 겨울부터 경모궁 영신에 9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궁(경모궁)의 악을 9성으로 고쳐서 쓰면, 향례(享禮)가 태묘에 비해 조금 간략하여 언제나 악은 여유가 있는데 예는 부족한 한탄을 초래하므로, 선조(先朝) 기미년(정조 23년)에 특별히 장악원에 장보(章譜)를 개정할 것을 명하셨고, 천신(賤臣)은 제거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가 성교(聖敎)에 의거해 성수(成數)는 벌여 아홉으로 하고, 강수(腔數)는 줄여 간략하게 하였으며, 전폐 이하는 또 단락마다 곡조<의 길이>가 다르므로 모두 영신곡(迎神曲)의 장단에 의거해 그 강수(腔數)를 줄인 뒤 기미년 겨울 납일(臘日)부터 올려 썼습니다.⁶⁴⁾

이는 정조 24년(1800) 5월 5일에 경모궁악을 논하는 자리에서 협률랑 이영유(李英裕)가 '영신 9성이 너무 더딘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도⁶⁵⁾ 확인된다.

순조 9년(1809) 3월에 임금이 "경모궁 악장은 8성(成)을 쓰는가?" 하니, 홍석주가 말하기를, "천신(天神)에게는 6성을 쓰는데, 예컨대 남단(南壇)이 이것이며, 지기(地

62) 『正祖實錄』 권32. 66a8-67a13 : 정조 15년 6월 乙丑.

63) 『俗樂源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서울 : 국립국악원발행) 제11권 52쪽.

64) 『純祖實錄』 권6. 27a11-b5 : 순조 4년 8월 庚申.

65) 『正祖實錄』 권54. 32b10-12 : 정조 24년 5월 丙戌 「展拜于景慕宮 省牲省器 夏享在翼日也 召見本宮提調徐龍輔 掌樂提調趙鎭寬 李壽九 協律郎李英裕等 問享樂腔譜 上曰 肄儀初獻時 樂作頗合節奏矣 英裕對曰 迎神九成恐太遲...」

祇)에는 8성을 쓰는데, 예컨대 사직이 이것입니다. 묘궁(廟宮 종묘와 경모궁)에는 다같이 9성을 씁니다.” 라고66) 말하는 데서 순조대에도 여전히 경모궁에 9성을 썼음을 알 수 있다.

4. 음악적 특성

순조 9년(1809)에 남공철이 경모궁 제례악 악장을 고쳐 지었으나, 다음의 사료를 통해 볼 때, 악장을 고칠 당시에 악곡까지 고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순조 9년(1809) 3월 28일> 승지 홍석주가 아뢰기를,

“대저 태묘 15실에서 제사지내는 시간이 좀 길므로 악장의 구어(句語)가 많아도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모궁의 경우 제사지내는 시간이 짧는데 반하여 악장은 너무 길므로 매양 촉박하다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선조(先朝:정조) 만년(晩年)에 이미 글자 수를 감하고 그에 의거하여 연주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다시 짓겠다는 하교가 있었으나. 미처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악보에 관한 책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악장을 고치더라도 이원(梨園)의 성률(聲律)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니, 홍석주가 말하기를,

“악원에 있는 책자를 가져다가 상고하여 보니, 경모궁 악장은 이미 도식(圖式)을 써서 둔 것이 있었습니다. 악장을 이제 개찬(改撰)한다고 하더라도 자수(字數)의 다과(多寡)를 이 악보에 의거하여 정한다면 성률은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67)

그렇다면 순조 9년에 악장을 개찬할 때 참조한 악보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순조 4년(1804) 8월 4일> 좌참찬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

“…궁(경모궁)의 악을 9성으로 고쳐서 쓰면, 향례(享禮)가 태묘에 비해 조금 간략하여 언제나 악은 여유가 있는데 예는 부족한 한탄을 초래하므로, 선조(先朝) 기미년(정조 23

66) 『純祖實錄』 권12. 22a11-13 : 순조 9년 3월 戊子. 「上曰 景慕宮樂用八成乎 與周曰 天神用六成 如南壇是也 地祇用八成 如社稷是也 廟宮則並用九成矣」

67) 『純祖實錄』 권12. 22a3-10 : 순조 9년 3월 戊子. 「與周曰 …大抵太廟十五室禱獻之間 稍久故 樂章句語雖多 可以盡奏 而景慕宮則將事之際 時刻既速 而樂章太長 故每有促迫之歎 先朝晩年 既命減其字數 使之依此以奏 又有更撰之下教 而未及成就 今其樂譜冊子則尚在矣. …上曰 雖改樂章 梨園聲律 別無改定者乎 與周曰 取考樂院所在冊子 景慕宮樂章已有圖式之書置者 樂章今雖改撰 而字數多寡 若依此譜 則聲律似無改定者矣…」

년)에 특별히 장악원에 장보(章譜)를 개정할 것을 명하셨고, 천신(賤臣)은 제거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가 성교(聖敎)에 의거해 성수(成數)는 벌여 아홉으로 하고, 강수(腔數)는 줄여 간략하게 하였으며, 전폐 이하는 또 단락마다 곡조<의 길이>가 다르므로 모두 영신곡(迎神曲)의 장단에 의거해 그 강수(腔數)를 줄인 뒤 기미년 겨울 납일(臘日)부터 올려 썼습니다. 다만 강조를 이미 줄였으니 악장에 장구(長句)를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때 마땅함을 따라 친히 지으시겠다는 명이 있었으나, 곧 선조께서 승하시시는 슬픔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⁶⁸⁾

즉 정조 23년(1799)부터 경모궁 영신에 9성을 하게 되었는데, 의식에 비해 음악이 길어서 축급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강수(腔數)를 줄여 음악을 짧게 만들어 이해 겨울 납향(臘享)부터 썼던 것이다. 이 음악을 듣고, 임금은 “음악이 전에 비해 과연 느려졌다.”고 말하였다.⁶⁹⁾

따라서 악장을 개찬할 당시 참조한 악보는 정조 23년에 이미 고쳐 만든 악보이다. 악장은 정조 23년에 개찬되지 않고 순조 9년(1809)에 가서야 개찬되었는데, 각각 4언 4구이다. 이는 정조의 “악장이 너무 길으니 줄이되, 5언을 깎아서 4언으로 만들라.”고⁷⁰⁾ 한 뜻을 따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친 음악은 『속악원보』(俗樂源譜) 권3에 실려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영신에 3성을 하던 것을 9성을 하게 됨에 따라 음악이 축급해질 것이 우려되어 악곡이 고쳐졌고, 그에 따라 악장이 개찬되었다는 것이다.

정조 22년(1798)에 왕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음악관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다스려진 세상의 음악은 편안하고 느려야 하며, 더구나 제사를 지내고 조회를 할 때 언

68) 『純祖實錄』 권6. 27a13-b5 : 순조 4년 8월 庚申. 「上曰 左參贊亦陳所見 鎮寬曰 闕宮樂章之初用三成 後改九成…宮樂改用九成 則享禮比太廟稍簡 而每致樂有餘禮不足之歎 故先朝己未特命樂院釐正章譜 而賤臣獲以提舉與焉 謹依聖敎 成數則列以爲九 腔數則減而從略 自奠幣以下 則又是段段異調 故并依迎神曲長短 而減其腔數 遂自己未冬臘進用之矣 但腔調既減 則樂章不宜用長句 故伊時有從當親撰之命 而旋抱遺弓之慟 此事遂未成矣」

69) 『正祖實錄』 권52. 60a8-11 : 정조 23년 12월 丁未. 「行景薰宮臘享大祭 攝儀也…上曰 升歌節奏比前果爲舒緩…」

70) 『純祖實錄』 권12 21b15-22a2 : 순조 9년 3월 戊子. 「魯敬曰 …先朝己未年 下敎以樂章太長裁節之 五言刪爲四言 一章分爲二章 用於亞終獻 亦有改撰之敎 而未及成矣」

주하는 음악은 더욱더 느긋하며 오래 끌어야 한다.⁷¹⁾

정조의 이러한 뜻이 악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속악원보』 권3에 실린 경모궁제향악과 『속악원보』 권1에 실린 종묘 제향악의 노래 가사에 딸린 음정수를 비교해보겠다. 경모궁 제향악은 종묘제향악을 축소한 곡이므로,⁷²⁾ 이 둘을 비교하면 특색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1) 영신(迎神) 오휴곡(於休曲)

『속악원보』(俗樂源譜) 권3에 실린 경모궁 영신악은 다음과 같다.

迎神 於休曲 黃鍾清宮九成

					하5				하4			하4		하3		
									:					○		
					於				休					錫		

하3		하2	하2		하1		하1	궁			궁		궁			
		①			:						①					
祉		肅			穆			离						光		

궁					하1			상1					궁			
○					①			○					①			
將					龍			旂					裸			

하1		하2	하3		하4			하5			하5		하5			
:			○								○					
將		洋	洋					帝					傍			

71) 『正祖實錄』 권50. 35a7-8 : 정조 22년 11월 己丑. 「教曰 治世之音 舒而緩 況祀享朝會之奏樂 益當遲之遲」
 72) 장사훈, 『增補韓國音樂史』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6) 272-276쪽. 426-428쪽.

하5		
○		
△		

73)

영신에 연주되는 오휴곡의 각 가사에 해당하는 정간 수와 음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음이 연이어서 나온 경우는 실제로 나온 수 만큼 적고, () 속에 같은 음정이라는 뜻으로 1이라는 수를 적었다. 예를 들면 오휴곡 제 1구의 '休'에는 하4 음이 2번 나오지만 하4 한 음정이므로 2(1)로 적었다. 그러나 혁우곡 제 2구의 '登'에는 하2 하2 하1 하2가 나와 4개의 음 중 3개의 음이 동일하나 음표 수대로 4만 적었다. 도표에서 ()에 숫자를 적은 경우는 반드시 동일음만 나오는 경우이다. 극단적인 예로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의 제 1구 '後'에는 하2 하2 하3 하3 하3 하3 하3 하3이 나와 8개의 음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음정은 둘뿐이나, 도표에서는 그대로 8이라 적었다. 도표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한 글자에 음이 하나가 나오는가? 둘 이상이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신(迎神) 오휴곡(於休曲)

가사	정간수	음수									
於	3	1	休	5	2(1)	錫	3	1	祉	2	1
肅	3	2(1)	穆	3	2(1)	离	5	2(1)	光	8	2(1)
龍	3	1	旂	5	1	裸	3	1	將	2	1
洋	1	1	洋	5	2	帝	5	2(1)	傍	6	2(1)

영신 오휴곡에서는 가사 16글자 중, 한 글자에 서로 다른 두 음정이 나온 경우는 단 1회뿐이다. 음영표시를 해놓았다.

오휴곡의 출처인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熙文)은 다음과 같다.⁷⁴⁾

73) ①雙 ○鼓 : 搖 | 鞭 / 拍.

74) 『속악원보』(서울:은하출판사, 1989) 권1 회문에는 제 3구의 '禮'자와 제 4구의 '成'자가 적혀 있지 않아 『세조실록악보』를 참조하였다. 『속악원보』 권1의 회문과 『세조실록악보』의 회문은 가사배자와 선율이 똑같기 때문이다.

오휴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熙文).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世	3	德	2	啓	2(1)	我	2	後	8
於	3	昭	2	想	2	形	3	聲	8
肅	3	肅	2	薦	2(1)	明	3	禮	8
綏	3(1)	我	4	賚	2(1)	思	2	成	8

가사 20 글자 중 한 글자에 동일한 음정이 나온 경우는 4회뿐으로, 대부분 가사 한 글자에 둘 이상의 음이 나온다.

(2) 전폐(奠幣) 재명곡(齊明曲)

재명곡은 오휴곡과 음악이 완전히 동일하다.

(3) 진찬(進饌) 혁우곡(赫佑曲)

가사	정간수	음수									
我	5	1	牲	3	1	既	8	2	備	3	1
于	10	3	登	11	4	于	8	2	豆	5	1
是	3	1	享	13	3	是	11	3	宜	5	1
子	3	1	孫	11	3	其	10	3	佑	6	2(1)

혁우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진찬 풍안지악(豐安之樂).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執	1	饗	1	踏	2	踏	1
登	3	我	4	俎	2	豆	1
俎	1	豆	3	既	3	登	1
樂	5	且	3	和	3	奏	5
苾	4	芬	3	孝	1	祀	1
維	3	神	3	其	1	右	1

혁우곡은 16글자 중 8 글자에 한 음정이 나오고, 혁우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진찬 풍

안지악은 24글자중 10글자에 한 음정이 나와서, 혁우곡이 1자1음의 성향이 약간 높다.

(4) 초헌(初獻)

제권곡(帝眷曲)은 오휴곡과 음악이 완전히 동일하다.

진색곡(震索曲)

가사	정간수	음수									
震	5	1	索	3	1	應	8	2	天	3	1
受	2	1	命	3	1	代	8	3	理	5	1
令	8	2	聞	6	2	餘	13	4	烈	5	1
後	3	1	孫	5	1	垂	3	1	祉	3	1

진색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기명(基命).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於	1	皇	3	聖	2	穆	1
浮	3	海	3	徙	2	慶	1
歸	1	附	1	日	5	衆	1
基	2	我	4	永	5	命	1

진색과 기명은 4연4구 16자로 글자의 자수가 같은데, 진색은 그중 11글자에 한 음정이 쓰이고, 기명은 7글자에만 한 음정이 쓰이어, 진색곡이 기명보다 1자 1음의 성향이 높다.

유길곡(維吉曲)

가사	정간수	음수									
祝	5	1	告	3	1	維	5	1	吉	3	1
享	5	2	儀	3	1	不	5	2	愆	3	1
神	8	3	其	3	1	保	2	1	佑	3	1
於	5	3	千	3	2	萬	5	2	年	3	1

유길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역성(繹成).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世	1	德	1	作	1	求	1
率	2	維	1	敕	1	功	1
光	2	闡	1	太	3	平	1
禮	2	樂	1	方	1	隆	1
左	1	籥	1	右	2	翟	1
曰	3	既	1	九	1	變	1
式	1	昭	1	光	1	烈	1
盡	3	美	1	盡	2	善	1

유길곡은 16글자 중 10글자에 한 음정이 쓰이고, 역성은 32글자 중 24글자에 한 음정이 쓰여서, 1자1음의 성향이 유길곡이 좀 낫다.

(5) 아헌(亞獻) · 종헌(終獻)

독경곡(篤慶曲)

가사	정간수	음수									
篤	10	2(1)	慶	10	2(1)	延	10	2(1)	休	10	2(1)
其	10	2(1)	祥	14	4(1)	長	6	1	發	7	2(1)
駿	3	2(1)	奔	8	2(1)	祖	6	2	位	3	1
肅	11	4(1)	醜	10	4	對	6	3	越	14	4(1)

독경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소무(昭武).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天	3(1)	眷	2	我	3(1)	列	2	聖	9
繼	4	世	2(1)	昭	3	聖	3	武	8
庶	3	揚	2	無	3	競	3	烈	9
是	3	用	4	歌	2	且	2	舞	8

독경곡은 16글자 중 3글자만이 두 음 이상인데 반해, 소무는 20글자 중 3글자만이 한 음이어서, 독경곡이 소무에 비해 1자 1음의 성격이 농후하다.

휴운곡(休運曲)

가사	정간수	음수									
天	6	1	啓	4	1	休	10	2	運	4	1
德	2	1	洽	4	1	重	10	3	光	6	1
本	10	2	支	8	2	百	16	4	世	6	1
俾	4	1	熾	6	1	而	4	1	昌	4	1

휴운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독경(篤慶).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於	1	皇	3	聖	2	穆	1
建	3	牙	3	于	2	朔	1
通	1	篤	1	其	5	慶	1
肇	2	我	4	王	5	迹	1

휴운곡과 독경은 4언4구 16자로 글자수가 같은데, 휴운곡은 그중 11글자에 한 음정이 쓰이고, 독경은 7글자에만 한 음정이 쓰이며, 휴운곡이 독경보다 1자 1음의 성향이 높다.

휘유곡(徽柔曲)

가사	정간수	음수									
於	6	2	乎	4	1	不	6	1	顯	4	1
徽	4	1	柔	2	1	養	10	2	德	4	1
既	4	1	享	6	2	我	6	1	誠	4	1
神	9	4	降	4	2	遐	3	2	福	4	1

휘유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영관(永觀).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가사	음수
於	4	皇	1	列	1	聖	1
世	2	有	2	我	1	功	1
盛	2	德	1	大	2	業	1
曷	2	可	2	形	2	容	1
我	4	舞	2	有	1	突	3
進	4	止	1	維	1	程	1
委	1	委	2	佗	1	佗	1
永	4	觀	2	厥	2	成	1

취유곡은 16글자 중 10글자에 한 음정이 쓰였고, 영관은 32글자 중 16글자에 한 음정이 쓰여, 1자1음의 성향이 취유곡이 높다.

(6) 철변두(徹籩豆) 유분곡(有芬曲)

진찬(進饌) 혁우곡(赫佑曲)과 똑같다.

(7) 송신(送神) 아례곡(我禮曲)

진찬(進饌) 혁우곡(赫佑曲)과 똑같다.

이상 살펴본 결과 초헌의 유길곡을 제외하고는, 경모궁 제향악이 종묘제향악보다 1자 1음의 성향이 높다. 즉 종묘제향악보다 음의 변화를 적게 주어 악곡을 한가롭고 느긋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 구(句)가 4언(言)으로 이루어진 것 및 훗날 한 음(音)의 길이가 일정하게 된 것과⁷⁵⁾ 더불어 아악화를 지향한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영조 38년(1762) 윤5월에 사도세자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였고, 재기(再碁)가 지난 후 신위는 수은묘(垂恩廟)에 모셔졌다. 1776년 3월에 그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 곧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사당을 고쳐 짓고 경모궁(景慕宮)이라 이름 지었다.

정조 즉위년(1776)에 이휘지로 하여금 악장을 짓게 하였고, 악기조성은 즉위년 8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1777) 5월에 완성되었다. 경모궁 제례에 음악이 연주된 것은 영조의 상(喪)이 끝난 정조 2년(1778) 5월 이후부터이다. 악기편성은 등가에 19명, 헌가에 21명의 악공이 쓰였다. 이는 종묘에 등가 22명·헌가 24명의 악공이 쓰인 것에 비해 규모가 약간 작을 뿐이다.

75) 『俗樂源譜』 권6. 信19a-21b.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11권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진흥회).

처음에 경모궁 제례 영신에 3성(成)을 하였는데, 경모궁은 종묘나 문묘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령에 대한 제향이니 9성을 하는 것이 옳다 하여, 정조 23년(1799) 겨울 납향(臘享)부터 9성을 연주하였다. 영신에 9성을 하게 되면, 의식에 비해 음악이 길어서 너무 축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악곡을 줄이었고, 그에 맞춰 악장을 왕이 친히 고치려 하였으나, 미처 이루질 못하고 승하하였다. 순조 9년(1809)에 이르러 남공철이 경모궁 악장을 개찬하였는데, 정조 23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악보에 의거하였으며, 정조의 유지(遺旨)를 따라 모든 악장을 4연4구로 만들었다.

『속악원보』 권3에 전하는 경모궁 제례악은 정조 23(1799)년에 고친 악곡과 순조 9년(1809)에 고친 악장이 실려 있는 것이니, 『속악원보』 편찬 연대는 순조 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속악원보』 권3의 경모궁 제례악과 권1의 종묘 제례악을 비교해본 결과 경모궁 제례악이 종묘 제례악보다 1자1음의 성향이 높았다.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예를 든다면 영신 오휴곡(於休曲)의 16글자 중, 한 글자에 서로 다른 음정이 나온 경우는 1회뿐인데, 오휴곡의 출처인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熙文)은 20 글자 중 한 글자에 동일한 음정이 나온 경우가 4회뿐이다. 아헌 인입의 독경곡(篤慶曲)은 16 글자 중 3글자만이 두 음 이상인데, 독경곡의 출처인 종묘 제례악 소무(昭武)는 20 글자 중 3글자에만 한 음이 나온다. 즉 경모궁 제례악은 종묘 제례악보다 음(音)의 변화를 적게 주어 한가롭고 느긋하게 만들었다.

경모궁 제례악의 출처인 종묘 악장, 정조 즉위년(1776)에 이휘지가 지은 경모궁 악장, 순조 9년에 고친 경모궁 악장의 자구(字句)는 다음과 같다.⁷⁶⁾

76) 종묘 제례악을 축소한 곡에 없어 부르는 경모궁 제례악 송신의 악곡 이름에 경안곡(景安曲)·경안지악(景安之樂)이 나오는데, 이는 『詩樂和聲』에 실린 경모궁 제례의 영신악 악곡인 경안지악(景安之樂)과 전혀 관련이 없다.

	종묘악장	이휘지 경모궁 악장	남공철 경모궁 악장
영 신	희문 5언 4구	오휴곡 5언 4구	오휴곡 4언 4구
전 폐	희문 5언 4구	재명곡 5언 4구	재명곡 4언 4구
진 찬	풍안 4언 6구	혁우곡 4언 6구	혁우곡 4언 4구
초 헌	희문 5언 4구	제권곡 5언 4구	제권곡 4언 4구
	기명 4언 4구	진색곡 4언 8구	진색곡 4언 4구
	역성 4언 8구	유길곡 4언 8구	유길곡 4언 4구
아 헌	소무 5언 4구	독경곡 5언 4구	독경곡 4언 4구
	독경 4언 4구	휴운곡 3언 8구	휴운곡 4언 4구
	연관 4언 8구	휘유곡 4언 8구	휘유곡 4언 4구
철변두	웅안 4언 6구	강안곡 4언 6구	유분곡(강안지악) 4언 4구
송 신	홍안 4언 6구	경안곡 4언 6구	아례곡(경안지악) 4언 4구

즉 정조의 유지(遺旨)에 따라 남공철이 고친 경모궁 악장은 모두 4언으로 되어 사직·선농·문묘 등에 쓰이는 아악 악장의 4언과 같다.

이상, 경모궁 제례악이 1자 1음의 성향이 높아진 것과 악장의 자수가 4언으로 된 것은 훗날 음의 쇠기가 균일하게 된 것과 더불어 아악화를 지향한 것이다. 비록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시악화성』에 실린 아악 양식의 경모궁 제례악보와 종묘제례 악보는⁷⁷⁾ 이당시의 음악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훗날 경모궁 제례악 및 보태평·정대업·여민락만·여민락령·낙양춘 등 궁중음악에서 한 음의 쇠기가 균일화 된 시대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다.

광무 3년(1899) 11월에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부묘함에 따라 경모궁 제례악은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다.

77) 『詩樂和聲』 人31.7-人42.2.